

CMF

Color

Material

Finish

Maison&Objet Paris

FW 2024

유망기업 인터뷰

Contents

①	더 굿 플라스틱 컴퍼니 The Good Plastic Company	“잊혀진 CD 케이스의 화려한 변신”	03
②	스톤리프 Stoneleaf	“지구에서 가장 얇은 천연석”	10
③	3D 코르크 3D Cork	“자연이 만든 미래형 소재, 코르크의 무한한 가능성”	16
④	알팡쥬 Alpange	“고급 피아노와 예술적 오브제 그 사이”	22
⑤	앙가 Anga	“플라스틱에서 판타스틱 대리석으로”	29

① 더 굿 플라스틱 컴퍼니 The good plastic company
thegoodplasticcompany.com

the
**good
plastic**
company

잊혀진 CD 케이스의 화려한 변신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선도적인 건축·디자인 산업용 자재 브랜드 더 굿 플라스틱 컴퍼니(The Good Plastic Company)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상표인 폴리굿®(Polygood®)을 운영하며, 2018년부터 삼성, 나이키를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 굴지의 건축 회사와 협업해 이제까지 천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작년에만 전 세계 50곳 이상의 행사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나서며 매년 발생하는 4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굿 플라스틱 컴퍼니의 글로벌 세일즈·마케팅 디렉터 빅토리아 세도바(Viktorii Siedova)와의 인터뷰입니다.

Q. 사용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재료와 원자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폴리굿®은 내구성과 지속성을 최우선 과제로, 다른 폴리머에 비해 에너지 수요가 낮은 장점을 지닌 단일 유형의 재활용 폴리스티렌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원자재 공급 회사는 네덜란드의 폐기물 관리 회사로, 대량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독점 파트너십을 맺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샘플과 제품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장기 및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론칭한 트랜스루센트 컬렉션(Translucent Collection)은 CD 케이스를 재활용한 것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의 유럽 인증(EuCertPlast) 보유 업체로부터 재료를 공수합니다. 이 외에도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준수 여부, 원자재의 원산지 추적, 무독성 검증 같은 관련 인증과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1-2. 메종앤오브제 FW 2024 폴리굿®의 부스. ©유승주

3. 더 굿 플라스틱 컴퍼니의 빅토리아 세도바



Q. 플라스틱 폐기물을 폴리굿® 소재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직접 제작한 자체 장비로 CD 케이스, 냉장고 패널, 키보드 등 다양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며,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재료를 완벽한 신소재로 재탄생시키는 우리만의 ‘레시피’를 개발해 우수한 물리적 특성의 고품질 재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처럼 프로젝트별 고유의 레시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적화된 공정으로 완성된 폴리굿®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최소화 단계인 VOC A+ 등급, 크래들 투 크래들 인증®(Cradle to Cradle Certification®)의 브론즈(Bronze) 등급, 내화성에 대한 유로클래스(Euroclass)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 접촉에 대한 유럽의 안전 인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ISO 표준(ISO 9001: 품질 관리, ISO 45001: 안전 및 보건 경영, ISO 14001: 환경 관리)에 따라 제조됩니다.

Q. 소재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생한 색상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컬러는 재활용 소재 자체의 색이 반영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파란색 산업용 스폰은 파란색 플레이크로 분쇄된 후 파란색 패널로 완성되는 식입니다. 무지갯빛 다채로운 컬러와 패턴 옵션을 자랑하며 빛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트랜스루센트 컬렉션은 가끔 천연 안료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재활용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표준 산업 관행을 고수합니다.



- 4. 신소재로 탄생하기 전 다채로운 플라스틱 폐기물의 모습. ©유승주
- 5. 식품 접촉 시 안전한 소재로 식음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The Good Plastic Company
- 6. CD 케이스를 재활용한 트랜스루센트 컬렉션. ©The Good Plastic Company
- 7. 트랜스루센트 컬렉션을 리셉션 데스크에 적용한 모습. ©The Good Plastic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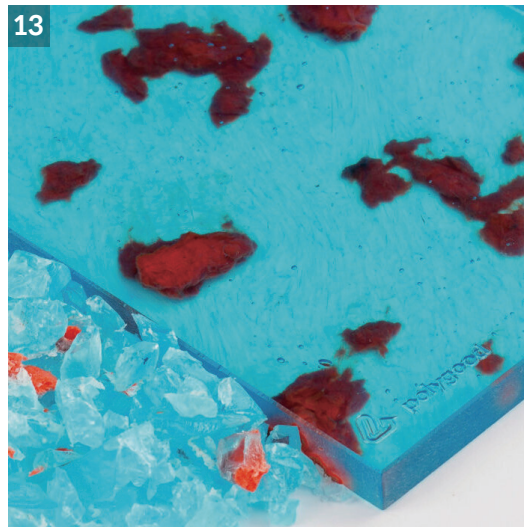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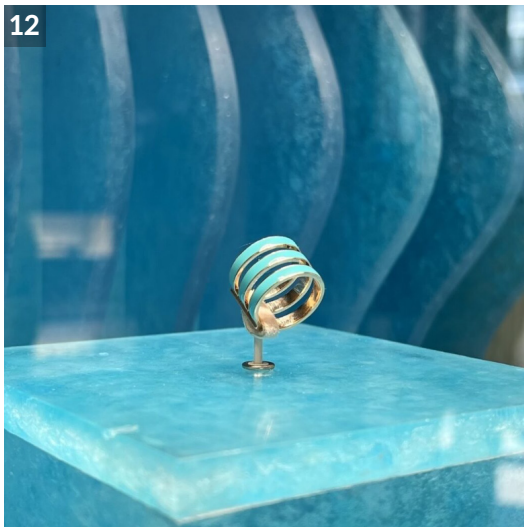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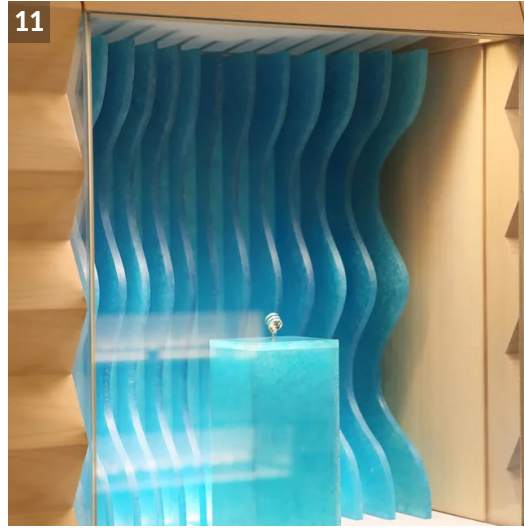
Q. CD 케이스로 만든 트랜스루센트 컬렉션의 내구성은 어떠한가요?
적절한 활용 분야도 궁금합니다.

CD 케이스는 본질적으로 깨지기 쉽지만 재활용 폴리스티렌의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두께를 12mm와 19mm로 두껍게 제작함으로써 뛰어난 강도와 수명을 지닙니다. 다만,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긁힐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합니다. 백라이트 패널, 조명 설비와 같은 장식적인 요소에서 샤워 칸막이, 테이블 상판, 의자, 방수성이 요구되는 외부용 제품에도 두루 적합하며, 이에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폭넓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8. 칼 라거펠트의 쇼룸에 적용된 폴리컷®. ©Diana Zuican

9. 런던의 나이키 쇼룸에 적용된 폴리컷®. ©The Good Plastic Company





Q.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칼 라거펠트, 나이키, 아디다스, 러시 외에도, 노르웨이의 빌딩 내 설치한 천장 조명은 트랜스루센트 컬렉션을 열성형한 것으로 직경 1.2m의 임팩트 있는 디자인에 견고하면서도 가볍고 세척도 가능해 편리합니다. 고급 주얼리 브랜드 레포시(Repossi)는 모나코에서 맑은 파도를 연상시키는 유기적인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환 경제를 장려하며 고객이 폐기물을 무료로 반환하면 당사가 새로운 컬렉션을 만드는 회수(Take-Bac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위스의 음향 회사인 임팩트 어쿠스틱(Impact Acoustic)이 어쿠스틱 필러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재료는 오션 블루 위 핑크 산호초의 패턴이 특징인 코랄 리프(Coral Reef) 컬렉션으로 변신했습니다.

10. 노르웨이 건물 내 커스터마이징한 천장 조명. ©The Good Plastic Company
11-12. 주얼리 브랜드 레포시의 디스플레이. ©The Good Plastic Company
13. 트랜스루센트 컬렉션 내 코랄 리프. ©The Good Plastic Company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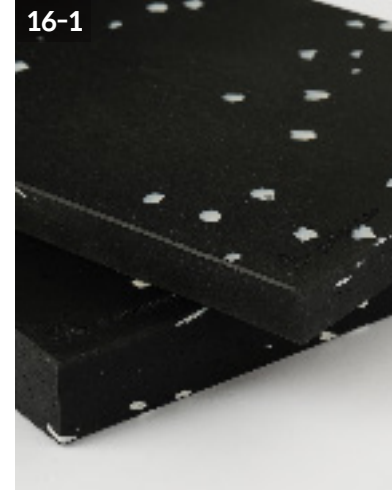
Q. 제품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폴리굿®의 전 제품은 기본 사이즈 외에도 무·유광 마감 선택, 사이즈와 컬러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현재 가능한 두께는 12mm, 19mm, 가장 큰 사이즈는 1400x2800mm로, 대형 패널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치수로 절단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폴리굿®의 가장 큰 사이즈는 1400x2800mm다. ©The Good Plastic Company

Q.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목표로 삼은 타깃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난 6년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유럽 연합, 특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집중했고,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광범위한 세일즈 네트워크를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한국, 일본, 호주에 유통 업체를 찾고자 하는데, 친환경 소재의 수요 증가와 브랜드의 미학이 고객 선호도와도 일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 아태(APAC), 유럽·아프리카(EMEA), 미주(Americas)에서 제품 수요의 지역별 차이가 있나요?

우리는 다양한 시장에서 뚜렷한 지역적 선호도를 관찰했습니다. 영국은 전반적으로 단색 패턴을 좋아하며, 흰색, 회색, 검은색 톤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리버스 타임리스 듀오(Reverse Timeless Duo), 타임리스 듀오(Timeless Duo)처럼 보다 고전적인 패턴을 선호합니다. 스페인은 지중해 색을 선호하며, 마벨러스(Marbellous) 패턴은 레스토랑, 호텔 같은 지역 호스피탈리티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선택됩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루센트 컬렉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된 수요는 여전히 단색과 흑백 패턴입니다.



15. 국가를 불문하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흑백의 단색 패턴 제품들. ©The Good Plastic Company

16. 라이트(Light) 컬렉션 내 타임리스 듀오. ©The Good Plastic Company

16-1. 다크(Dark) 컬렉션 내 리버스 타임리스 듀오. ©The Good Plastic Company

17. 컬러풀 스플래시(Colourful Splash) 컬렉션 내 마벨러스. ©The Good Plastic Company

지구에서 가장 얇은 천연석



프랑스의 천연석 시트 브랜드 스톤리프(Stoneleaf)는 말 그대로 종이처럼 얇게 만든 자연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렉상드르(Alexandre)와 에마뉘엘 다흐디(Emmanuel Dahdi) 형제는 2013년 회사를 설립하며 전에 없던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새로운 공정과 제품을 찾아 세계 곳곳을 탐험한 결과 완성한 혁신적인 소재는 천연석의 수려함과 내구성은 유지하되 현대인의 생활 공간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뛰어난 기능성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톤리프의 설립자인 에마뉘엘 다흐디와의 인터뷰입니다.

**Q. 먼저,
스톤리프란 무엇인가요?**

슬레이트, 운모(Mica), 또는 대리석을 얇은 판재로 만든 것으로 자연석의 무한한 색상과 질감을 갖고 있으며,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석재의 내구성은 변하지 않는 신소재입니다. 기존 석자재와는 달리 이동, 설치 및 유지 관리가 간편해 주거공간은 물론 오피스, 쇼룸, 호텔, 수영장, 야외 공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1. 메종앤오브제 FW 2024 부스. ©유승주

2. 스톤리프의 에마뉘엘 다흐디. ©유승주



Q. 혁신적인 소재를 출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대리석 산업에 종사하는 덕에 어려서부터 석재에 관심이 컸습니다. 대리석 같은 천연 석재를 취급할 때에는 채석장에서 나온 대형 블록을 절단하는데, 이는 매우 무거워 핸들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 겪었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스톤리프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3. 천연석의 다채로운 질감과 색상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Stoneleaf

4. 결이 살아 있는 인도산 슬레이트. ©유승주

Q. 대리석은 이탈리아, 슬레이트는 스페인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산 석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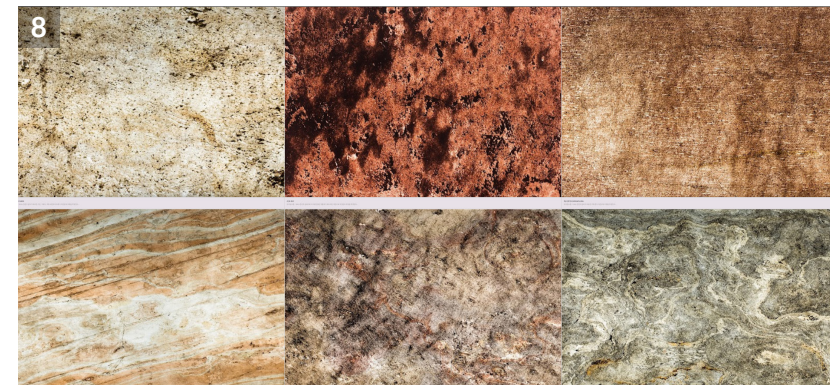
얇은 두께가 특징인 스톤리프는 레이저 커팅 없이 석재에 유리섬유와 레진을 사용해 손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인도산 슬레이트는 손으로 쉽게 뜯어지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스톤리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석재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식이
제품의 자연스러운 색상과 질감을 유지하는 비결인가요?
여기에서 유리섬유와 레진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원자재인 슬레이트, 운모, 대리석은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석재 블록의 레이어를 하나씩 손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고유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색을 간직하게 됩니다. 마치 제모를 할 때 테이핑을 뜯어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석재에 유리섬유 시트를 붙이고, 여기에 레진을 붓고 건조한 뒤 유리섬유를 손으로 떼어내면 돌의 종류에 따라 약 1.5mm 두께의 석재 시트 즉, 스톤리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인해 현재 하루 생산량은 약 1,000㎡입니다. 석재 표면을 균일한 두께로 뜯어내며 재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유리섬유의 탄성과 굳고 나서도 유연함이 지속되는 레진이 스톤리프 제작에 필수적입니다. 스톤리프를 비롯해 검은색 레진 대신 투명한 레진을 적용해 빛을 투영하는 트랜스루센트(Translucent), 금속 처리 기술로 골드, 실버, 쿠퍼의 메탈릭 효과를 낸 메탈(Metal) 이렇게 3가지 라인을 제공합니다.



5-6. 빛을 투영하는 트랜스루센트 라인. ©Stoneleaf

7. 스톤리프 라인. ©Stoneleaf

8. 트랜스루센트 라인. ©Stoneleaf

9. 메탈 라인. ©Stoneleaf

Q. 기존의 건축 자재와 달리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톤리프의 곡률 반경은 40cm 정도로, 곡선부의 마감을 포함해 어떠한 표면이든 추가적인 과정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가 매트처럼 말아서 배송할 수 있으니 경제적입니다.



Q. 원자재 선택 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또,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 돌의 결정화로, 석재에 결이 나 있어야 하며, 내부가 갈라지지 않은 소위 속이 짝 찬 석재를 고릅니다. 레진은 방수성을 결정하기에 품질 역시 중요한데요, 유리섬유와 레진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수한 뒤 인도로 보내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레진에 일종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향후 제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톤리프는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위한 인증인 BREEM, 건강한 실내 환경에 기여하는 인증인 유로핀즈 인도어 에어 컴포트®(Eurofins Indoor Air Comfort®) 골드(Gold) 등급, 내화성에 대한 유로클래스(Euroclass)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10.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스톤리프. ©유승주

11. 물을 사용하는 습한 공간에서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다. ©Stoneleaf

12. 스톤리프를 파사드에 적용한 모습. ©Stoneleaf



Q.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인 박람회는 어디였는지, 향후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세요.

9년 동안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 메종앤오브제에 참가해 왔으며, 파리에서 열리는 호텔 산업 박람회인 이킵호텔(EquipHotel)과 건축 박람회 아키텍트@워크(Architect@Work), 독일의 유로숍(Euroshop), 뉴욕의 ICFF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두바이의 건설 업계 박람회인 빅 5 글로벌(BIG 5 Global)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유럽 위주의 마켓이 형성되어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특히 한국, 일본, 홍콩과의 거래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년 안에 제품 라인을 10개 이상으로 확장하고, 소재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구 라인도 출시할 것입니다.

Q. 지금까지 진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세요.

지난 6년 이상 비오템의 공항 면세점 매장 디자인을 담당했으며, 현재 클라란스를 위해 동일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 로쉐 보보아와 프랑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퓨잡의 글로벌 쇼룸, 350개의 객실을 갖춘 미얀마 호텔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선택한 차량으로 잘 알려진 르노 라팔(Renault Rafale) 내 승객용 스트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3. 오슬로 아파트에 적용한 사례. ©Stoneleaf

14. 트랜스루센트 라인을 활용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Stoneleaf

자연이 만든 미래형 소재, 코르크의 무한한 가능성





포르투갈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3D 코르크(3D Cork)는 '코르크 인 3 디멘션(Cork in 3 Dimention)'의 약어로 코르크로 일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녀지간인 베르나르도 누네스(Bernardo Nunes)와 사라 누네스(Sara Nunes)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광범위한 제품을 직접 제조, 디자인, 유통하며 자연에서 온 천연 소재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선순환을 실천합니다.

다음은 3D 코르크의 CEO 이자 공동 설립자인 사라 누네스와의 인터뷰입니다.

Q. 지속 가능한 소재로서 코르크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먼저, 코르크는 숙련된 전문가가 성숙한 코르크참나무의 껍질을 나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수확하며, 그 이후로는 코르크 껍질이 충분히 재생되기까지 기다렸다가 9~12년 간격으로 재수확이 가능한 진정한 지속 가능한 소재입니다. 물론 생분해성 소재이자 재활용도 쉬워 폐기물 발생 없이 생산 주기에 다시 통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우 가벼워 사용이 편리하고 운송에도 효율적입니다. 셋째, 단열성, 방음성, 내구성이 뛰어나고 마모, 부패, 습기에 강합니다. 넷째, 코르크의 독특한 세포 구조로 인해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자극성 및 무독성으로 유해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내화성이 뛰어나 불이 불더라도 천천히 타오르며 유독 가스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질감과 따뜻하고 내추럴한 이미지를 지닙니다.



1-2. 메종앤오브제 FW 2024에 참가한 3D 코르크의 부스. ©유승주
3. 3D 코르크의 사라 누네스. ©유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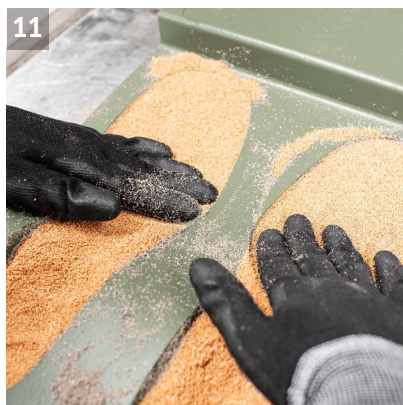
Q. 포르투갈이 세계 최고의 코르크 생산지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코르크 사용을 촉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시나요?

전 세계 코르크 생산량의 90%가 포르투갈로, 중남부에 위치한 알렌테주(Alentejo) 지방의 산타 마리아 다 페이라(Santa Maria da Feira) 마을에 코르크 산업 단지가 자리하며, 3D 코르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장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르투갈을 세계 최고의 코르크 생산국으로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고품질 코르크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코르크참나무 숲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생산자와만 거래합니다. 둘째,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며 새로운 응용 분야의 연구 개발에 투자합니다. 셋째, 순환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정책 하에 디자인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며, 태양열을 활용해 탄소 발자국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의 의존도를 줄여 나갑니다. 작년부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공급망 솔루션인 세덱스(Sedex) 회원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포르투갈 풋웨어 협회의 녹색 협정(Green Pact)에도 가입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르크에 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 포르투갈의 문화 유산인 코르크 숲. ©3D Cork

5. 성숙한 나무의 껍질만을 수확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과 생물 다양성을 고수하고 있다. ©3D Cork



Q. 앞서 말씀하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브랜딩의 일환으로 완전히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며, 패키지에 코르크의 환경적 이점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동봉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코르크의 수명 주기, 재활용성, 탄소 발자국 감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으로,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공유합니다.

Q. EU 코르크 산업에서 코르크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인증과 표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 관리 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14001과 순환 경제를 위한 크래들 투 크래들 인증®(Cradle to Cradle Certified®)을 따릅니다.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제한에 대한 유럽 규정인 REACH를 준수하며 제품에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장합니다. 또한, 제3자 검증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가로부터 품질 및 친환경성을 인증받은 숲에서만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 6. 코르크를 적용한 서핑 보드. ©3D Cork
- 7. 코르크에 라텍스를 부착해 유연성을 극대화한 요가 매트. ©유승주
- 8. 내화성이 우수한 코르크의 특성을 반영한 캔들 홀더. ©3D Cork
- 9. 다채로운 컬러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 ©3D Cork
- 10. B2B를 위한 커스텀 제작 현장. ©3D Cork
- 11. 몰드를 활용한 풋웨어 제작 과정. ©3D Cork



Q. 광범위한 라인 중, 가장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해 주세요.

2006년 시작한 3D 코르크는 홈웨어, 풋웨어, 스포츠 및 산업용 아이템을 선보이며, 2022년에 론칭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나투 바이 3D 코르크(Nattu by 3D Cork)는 슈즈 콤포트, 웰빙(요가 앤 스포츠), 테이블웨어, 장식용 오브제 같은 다채로운 품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로 모든 제품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인기가 많은 컬렉션은 나투 바이 3D 코르크의 나투라(Nattura)로 일상생활에 자연의 온기와 친밀함을 표현한 다기능성 제품입니다.

12. 가장 인기 많은 컬렉션 중 하나인 나투라의 매트. ©Nattu by 3D Cork
13. 아웃도어용 가구로도 활용 가능하다. ©3D Cork

Q. 다양한 제품 범주에 코르크를 적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면요?

코르크 소재의 특성상 손쉽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으며, 각 제품에 따라 제작 과정이 상이합니다. 일례로 접시나 코스터의 경우 유연할 필요는 없으나 심미성을 감안해 두께를 얇게 조절했으며, 몰드 생산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두께는 4mm입니다. 요가 매트는 유연성을 위해 코르크에 라텍스를 붙였고, 이에 맡아서 보관이 용이합니다. 이처럼 생산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생산, 수려한 디자인, 기능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신규 컬렉션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14. 미니멀한 디자인의 조명 컬렉션. ©3D Cork
15. 자연스러운 컬러가 매력인 딜라이트(Delight) 컬렉션. ©3D Cork



Q. 마지막으로, 오늘날 코르크 산업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는 참나무의 성장과 품질, 나아가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코르크 수확은 노동 집약적 과정인데, 숙련된 전문가의 감소와 비용 상승 이슈가 있으며, 약 10년 주기로 진행되는 코르크 수확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셋째, 수많은 코르크참나무 숲이 노화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재삼림화 없이는 향후 코르크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화의 확대처럼 코르크 숲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지속 가능성 관련 인증,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요구되는 상황은 중소 규모의 생산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공급망 관리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섯째, 여전히 일부 산업에서 친환경적 선택보다는 비용 절감이 우선시됨에 따라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대체 재료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더 저렴한 선택에만 이끌리지 않도록 코르크의 환경적 이점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Q. 지금까지 참가한 무역 박람회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참가했던 소비자 박람회로 프랑스 메종앤오브제(Maison & Objet)와 독일의 암비엔테(Ambiente)가 있으며, 경험 상 메종앤오브제는 리테일 위주의 거래, 암비엔테는 제조사 위주의 B2B 형태로 맞춤형 제품 개발을 요구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통된 현상이라면 천연 소재에 대한 관심이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했음을 느낍니다. 아직 유통 업체는 없지만 한국도 흥미로운 시장으로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16. 부드러운 촉감으로 일상에 포근함을 전하는 코르크 제품. ©3D Cork

4 알팡쥬 Alpange
alpange.com

ALPANGE

고급 피아노와 예술적 오브제 그 사이





프랑스의 하이엔드 디지털 피아노 브랜드 알팡쥬(Alpange)는 브랜드 최고 책임자인 라파엘 수드르(Raphaël Soudre)와 최고 기술 책임자 프랑크 바케(Franck Bacquet)의 공동 작품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순간의 몰입적인 경험과 특별한 감정을 나누겠다는 포부를 반영했습니다. 브랜드명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점차 주변 국가로 전파된 피아노의 오리지널리티를 품은 대자연인 알프스(Alpes)와 불어로 천사라는 의미의 앙쥬(Ange)라는 단어를 조합해 아름답고 초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유일무이하고 예술적인 피아노를 만든다는 자부심과 메이드 인 프랑스 라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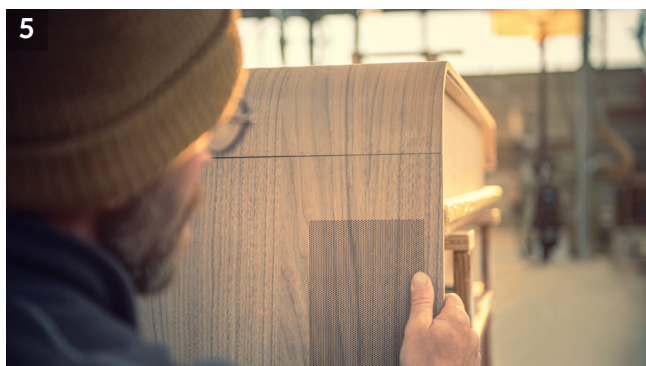
다음은 알팡쥬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브랜드 책임자인 라파엘 수드르와의 인터뷰입니다.

Q. 어린 시절부터 미래형 피아노를 꿈꿨다고요, 이것이 알팡쥬 피아노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피아노는 크게 클래식과 디지털로 구분되며, 전 세계의 톱 5 브랜드가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의 전통적인 피아노는 설치를 위한 공간과 주기적인 조율이 필요한데, 디지털화된 현대인의 삶에 맞춰 피아노도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인 사운드 품질은 유지하되 세련된 형태미를 극대화한 하나의 예술품을 완성했습니다.



1. 메종앤오브제 FW 2024 부스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 잡았다. ©유승주
2. 알팡쥬의 라파엘 수드르(우)와 개발 책임자 블랑슈 드 생 야콥(Blanche de Saint Jacob)(좌). ©유승주



Q. 시중의 디지털 피아노와 차별화되는 혁신성, 무엇보다도 섬세한 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검은색의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기존의 디지털 피아노와는 달리 최고의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전 재료는 프랑스에서 공수했으며,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피아노 외관은 몰푸레나무, 호두나무, 단풍나무 세 가지 목재 시트로 구성되며, 원하는 수종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내부는 포플러 나무로 마감하였고, 14개의 어쿠스틱 디퓨저와 4개의 진동 확산기를 배열, 진보된 디지털 모델링 기술로 충분한 공명이 이뤄지고 높은 기계적 응력을 견딜 수 있는 강렬한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운드 기술의 핵심은 모든 물리적 요소의 반응과 소리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알고리즘 덕분에 튜닝이 필요 없으며, 그랜드 피아노의 가장 큰 사이즈인 콘서트 그랜드와 동일한 사운드 파워를 지닙니다. 편집, 연주, 녹음 및 재생을 용이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 지원과 고도로 맞춤형 개인화 옵션을 제공합니다.

3. 어쿠스틱 전문가에 의해 철저히 설계된 내부. ©Alpange
4. 외부 마감은 몰푸레나무, 호두나무, 단풍나무 세 가지 목재 시트로 구성된다. ©Alpange
5. 피아노는 낭트의 워크숍에서 수제로 제작한다. ©Alpange
6. 제품은 이동식 맞춤 팔레트로 안전하게 배송된다. ©Alpange



Q. 사이즈와 무게 정보를 알려주세요.

알팡쥬 피아노의 무게는 100kg 정도로, S사의 그랜드피아노 무게가 약 480kg 임을 감안할 때 1/4 수준입니다. 피아노 내부에 조용용 목재가 불필요해 그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첫 컬렉션은 폭 x 깊이 x 높이가 각각 1700x600x800mm의 한 가지 규격으로 80대를 제작했습니다.

7. 호두 나무로 마감한 모습. ©Alpange

8. 물푸레나무의 매력이 잘 드러난 제품. ©Alpange



Q. 낭트에 위치한 워크숍에서 한 대의 피아노를 완성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현재 약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피아노 한 대당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9. 전용 어플리케이션 지원으로 더욱 즐거운 경험을 유도한다. ©Alpange

10. 부드러운 곡선 처리가 돋보이는 제품. ©Alpange

11. 안정감 있는 디자인의 알팡쥬 로고. ©Alpange

12



13



14



Q. 브랜드의 주요 타겟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관심사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주 고객은 '음악, 첨단 기술,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3060 세대로 수집가적 측면을 지닌 이들'이라고 한정할 수 있겠습니다. 활발한 SNS 활동과 더불어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하며 콘서트를 즐기고,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할 만한 경제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Q. 피아노 한 대당 소비자 가격은 얼마인가요?

약 6천6백만 원(€45,000)부터 시작합니다.

*기사 송고 시점에 따른 환율이며 변동 가능합니다.

12. 파리의 살 플레엘 무대. ©Alpange

13. 어떠한 공간에서나 조화로운 수 있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추구했다. ©Alpange

14. 피아니스트의 연주 모습. ©Alpange



Q. 브랜드, 아티스트와의 협업 사례도 궁금합니다.

4년 전부터 피아니스트들에게 시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세기 프랑스 최고의 콘서트 홀로 손꼽히는 파리의 살 플레엘(Salle Pleyel) 등지에서 관객은 물론 피아니스트들에게도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럭셔리 하우스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웨인 엔터프라이즈(Wayne Enterprises)와 협업해 배트맨을 기념하는 한정판인 마노 에디션(Manor Edition)을 10대 제작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기간 중 LVMH 그룹은 파리 중심부의 상징적인 호텔인 슈발 블랑 파리(Cheval Blanc Paris)의 루프탑 공간을 위해 알팡쥬 피아노를 선택했으며, 앞으로 그룹의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감성적인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브랜드 및 예술가와의 협업을 환영합니다.

Q. 알팡쥬를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글로벌 행사는 어디였나요?

참가한 이벤트 중 아트바젤.마이애미 비치(Art Basel.Miami Beach)에서 반응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메종앤오브제, 밀라노의 살로네 델 모빌레(Salone del Mobile), 런던 데코렉스(Decorex) 등에 참가했는데, 유럽과 미주 지역만을 포커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첫 고객은 도쿄에서 왔으며, 아시아에도 고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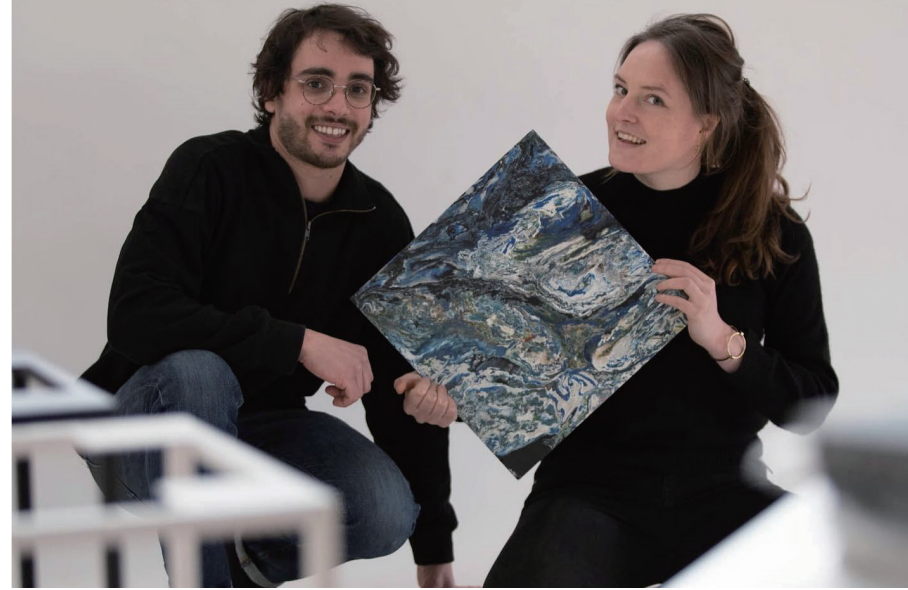
15. 배트맨을 연상시키는 한정판 마노 에디션. ©Alpange

플라스틱에서 판타스틱 대리석으로



프랑스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대리석을 추구하는 앙가(Anga)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Low-density polyethylene) 리사이클링 브랜드로, 알렉상드르 알리미(Alexandre Alimi)와 밸런타인 다르쿠르(Valentine d'Harcourt)가 2019년 론칭한 뒤, 작년 메종앤오브제 내에서 주목할 만한 신진 브랜드를 엄선해 소개하는 퓨처 온 스테이지(Future On Stage)에 초청, 포브스 30 언더 30(Forbes 30 Under 30)*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비닐봉지, 포장용 투명 필름 등에 사용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가볍고 유연해 가공이 용이한데, 이러한 소재적 특성을 활용해 페플라스틱을 가구, 소품, 내장재로 재탄생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전합니다.

*포브스가 매년 30세 미만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30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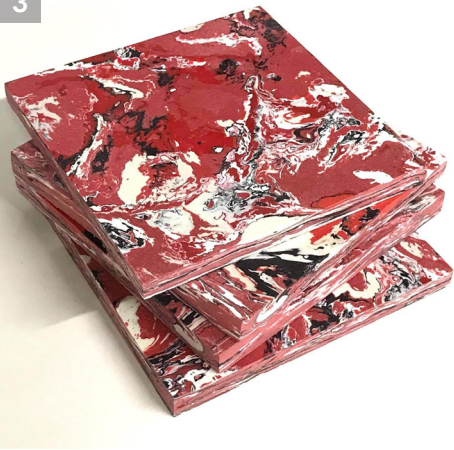
다음은 앙가의 공동 설립자이자 브랜드 경영을 담당하는 밸런타인 다르쿠르와의 인터뷰입니다.

Q.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브랜드의 차별점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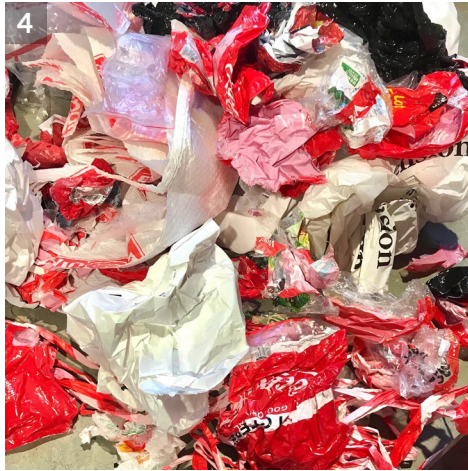
디자이너인 알렉상드르는 프랑스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한 뒤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아트 오브제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파이낸스를 전공한 뒤 그와 같이 앙가를 설립했으며, 경제성을 이유로 가구 및 실내외 건축용 소재로 품목을 전환했습니다. 대리석을 닮은 시트 형태의 제품은 매우 가벼우면서도 잘 깨지지 않으며, 수려한 디자인에 생태학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두루 만족스러웠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재활용해 대리석을 닮은 상판으로 완성했다. ©Anga
2. 앙가의 알렉상드르 알리미(좌)와 밸런타인 다르쿠르(우). ©Anga.jpg

3



4



우리는 유럽 내에서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는 유일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앙가'라는 브랜드명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대중의 편견을 극복하고 폐자재처럼 무가치한 요소에 다시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며 프랑스에서는 매년 8만 톤의 저밀도 폴리에틸렌이 재활용되지 않는데, 프랑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23%로, 유럽 평균인 30%에 비해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별도의 염료 없이 원자재의 색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Anga

4. 원하는 색의 원자재를 선택하면 그와 동일한 색의 패널을 완성할 수 있다. ©Anga

Q. 일 드 프랑스 지역에서 모든 원자재를 공급받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고려할 때 회사가 위치한 일 드 프랑스에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편이 유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료의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위치는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노르망디의 공급 업체 한 곳에서 “좋은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근거리의 공급자 10곳과 거래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좋은 품질의 쓰레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원자재를 선택하는 기준도 설명해 주세요.

한 마디로 ‘깨끗한 폐플라스틱’을 의미하며, 산업용과 소비재용 폐기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농업용 폐플라스틱의 경우 오염된 소재를 세척 및 건조해야 하는 추가 공정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슈퍼마켓에서 파는 6개 묶음 생수용 포장 용기는 별다른 오염원이 없는 깨끗한 폐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고려해,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수준의 소재를 납품하는 공급자와의 거래가 중요합니다.

5. 마블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하는 앙가의 패널. ©Anga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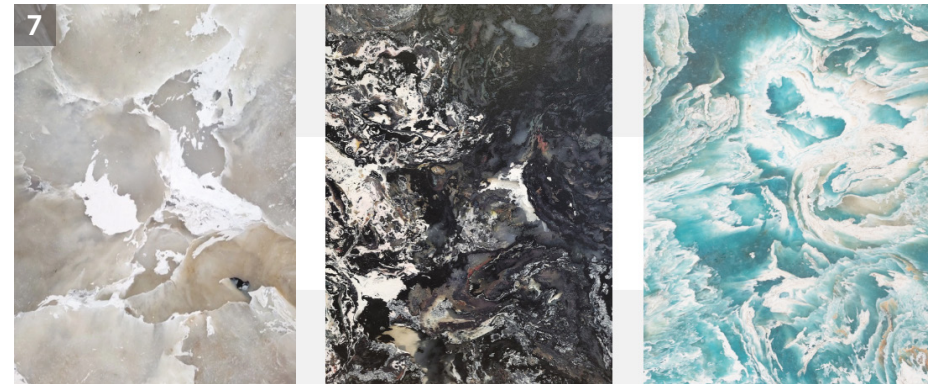
**Q.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리석을 닮은 패널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
앙가만의 혁신은 무엇인가요?**

정보 보안을 이유로 전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색상을 지닌 원자재를 분류 및 파쇄한 뒤 가열용 프레스에서 용융(일반적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가 되는 변화를 의미) 및 성형하고, 약 8시간 동안의 쿨링 기간을 갖습니다. 이후 플라스틱 패널의 표면을 디지털 커팅기로 일부 그라인딩 하면 자연스러운 대리석 패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업 중, 공기 방울 생성이나 재료 자체의 물리적인 반응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나,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며 고품질 신소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Q. 천연 대리석의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베인을 표현하기 위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대리석 고유의 타임리스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요, 소위 ‘마블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컬러의 원자재를 넣은 뒤 앞서 언급한 대로 액체화된 재료를 잘 섞고 커팅하면 그 단면에 자연스러운 대리석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패키지를 사용할 경우 빨강색, 흰색, 검은색이 어우러진 패턴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빨간색과 흰색이 믹스되어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원자재의 특성상 열을 가해도 색이 섞이지 않고 각자 고유의 색을 유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별다른 색소가 필요 없이, 구현하고 싶은 색상의 자재만 구하면 됩니다.



6. (좌에서 우로 순서대로) 둔, 피에르 드 라브, 아르티크 컬렉션의 원자재. ©Anga
7. (좌에서 우로 순서대로) 둔, 피에르 드 라브, 아르티크 컬렉션의 완성된 모습. ©Anga



Q. 양가의 대표적인 컬렉션의 원자재를 공개할 수 있나요?

둔(Dunes) 컬렉션은 슈퍼마켓을 포함한 식품 산업에서 수집한 화이트 필름을, 푸른빛이 매력적인 아르티크(Arctique)는 수산업에서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용암석을 뜻하는 피에르 드 라브(Pierre de lave)는 이벤트 산업에서 공수합니다. 예를 들어, 메종앤오브제를 대중에게 공식 오픈하기 전, 전시품을 보호하기 위해 씌우는 검은색 플라스틱 커버를 생각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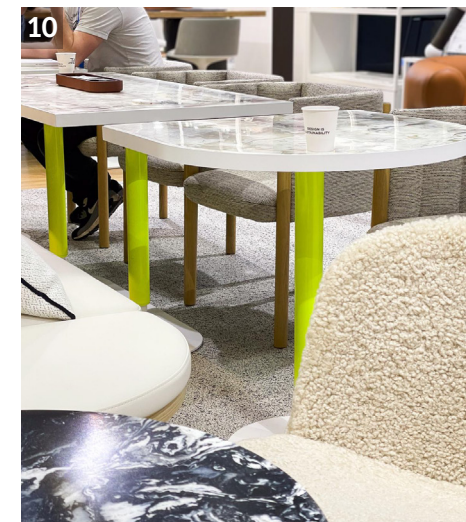
Q. 기본 사이즈와 오더 메이드를 위한 최소 주문 수량이 있나요?

12mm와 25mm의 2가지 두께에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라믹 타일 사이즈인 450x450mm, 600x600mm 등 다채롭게 구성됩니다. 가장 큰 패널은 1,350x1,350mm으로 현재 대형 프레스를 개발하고 있어 조만간 1,250x2,500mm 사이즈의 빅 슬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보통 연간 1만 장의 패널을 생산하며,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최소 주문량은 20㎡입니다.

8. 아크릴 코팅으로 무유광 표면 마감 중 선택 가능하다. ©Anga

Q. 양가의 제품은 내구성, 수명주기 측면에서 인조 대리석, 테라조 같은 건축 자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조 대리석, 테라조에 비해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무른 소재이긴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면을 아크릴 소재로 코팅하며, 무·유광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재활용에도 문제없습니다. 양가의 소재는 열성형이 가능하고 나무처럼 쉽게 절단할 수 있으며, 사용자 니즈에 오더메이드 되는 다재다능성을 지닙니다. 또한 대리석에 비해 무게가 훨씬 가벼워 핸들링하기도 쉽습니다. 대리석이나 목재도 그 등급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하나, 기존 석재에 비해 경쟁적이 있다고 여깁니다.



9. 무어 디자인과 협업한 테이블 디자인. ©Anga

10. 다양한 구성의 스트로비(Strobi) 컬렉션. ©Anga

Q. 이제까지 주요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세요.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 호텔을 포함한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는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건축 복원 프로젝트인 빌라 메디치(Villa Médicis)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현재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작년 9월부터 B2B 가구 브랜드 무어 디자인(Moore Design)과 함께 가구 및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재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앞으로 주방 및 욕실 상판용 제품 라인업 및 B2C 타겟의 제품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 중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공장을 세우면 현지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수월하고 장거리 배송 시 각종 애로 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승주(프랑스)

lifedesignerjoo@gmail.com / 디자인 전문기자

한국·일본·프랑스 최초 디자인 전문지 포함 국내외 주요 매체 기고

Designed by **이예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청년인턴